

CP 실천 CEO 메시지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입니다.

디지털 환경은 AI의 확산과 함께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네이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이의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공정거래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을 만들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특히 2026년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AI 기본법 시행으로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만들고 지켜 나가는 것 — 그것이 공정거래 자율준수(Compliance Program, CP)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P 운영의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네이버의 모든 사업 활동이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네이버는 2024년과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일상 속에 공정과 신뢰, 상생의 가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실입니다. 다만 등급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업무 속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오래 쌓아 올려야 하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전사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모든 유관 부서의 사업 목표에 반영하고, 이러한 원칙이 조직 전반의 업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며, 네이버와 연결된 모두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

